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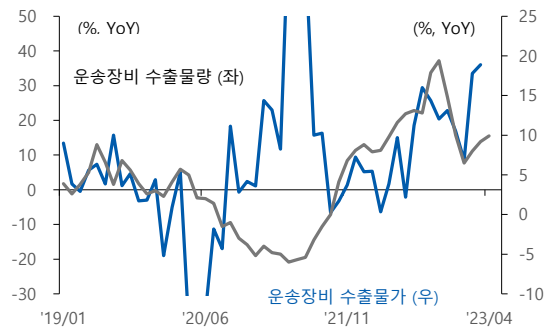


수출물가에서 확인되는 특징, 미국의 수요

1. 수출물가에서 확인되는 특징

- 4월 한국의 수출물가는 MoM 0.1%, YoY -7.5% 하락. YoY 기준 수출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MoM 기준 3개월 연속 상승세 흐름.
- 금액기준 수출 2위 품목인 운송장비의 수출물가 상승세가 특징적. 한편 DRAM은 MoM -16.0% 기록. 가격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운송장비 수출물량의 YoY 증감률은 높은 수치를 지속. 지난해의 기저가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강하게 확인.

4월 수출금액 2순위 품목인 운송장비의 수출물가는 상승세. 운송장비의 수출물량도 전년대비 높은 수치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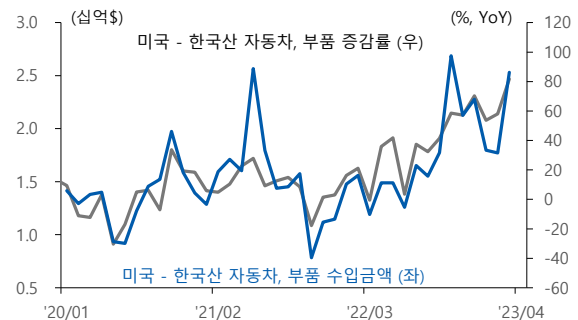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미국의 수요 상황 점검

- 미국의 한국향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은 25억 달러로 YoY 86.2% 급증. 또한 반도체, 첨단장비, 고가의 가전을 포함한 하이테크 수입 금액도 회복세.
- 4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MoM 0.4% 증가, 3개월 만에 반등하였으나, 컨센서스(0.8%)를 하회.
- 헬스케어(0.9%), 전자재 및 조경(0.5%), 자동차 및 부품(0.4%) 등 경기사이클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작은 제품들의 소매 매출이 증가.

미국의 한국향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은 25억 달러로 YoY 86.2% 급증. 4월 자동차 및 부품 소매판매도 증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수출물가에서 확인되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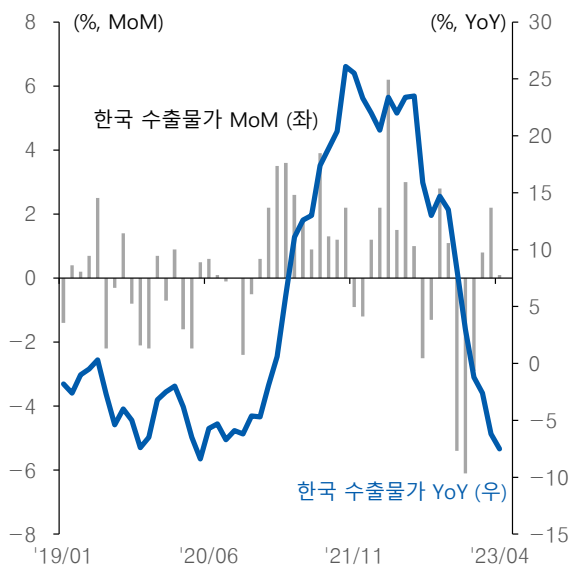
한국의 교역조건 개선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수출물가 지표가 있다. 4월 한국의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7.5% 하락했다. 전년대비 기준 수출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월대비 기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4월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7%, 전년대비 -5.8% 하락했다. 3월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지만, 수입물가의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 수입물가는 전년대비 -25.2% 하락했고, 마진과 연결되는 중간재 수입물가도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품목별 수출물가를 살펴보면, 4월 금액기준 수출 2위 품목인 운송장비의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4%, 전년대비 9.9% 상승했다. 한편 DRAM의 경우는 전월대비 -16.0%, 전년대비 -47.9% 하락하며 가격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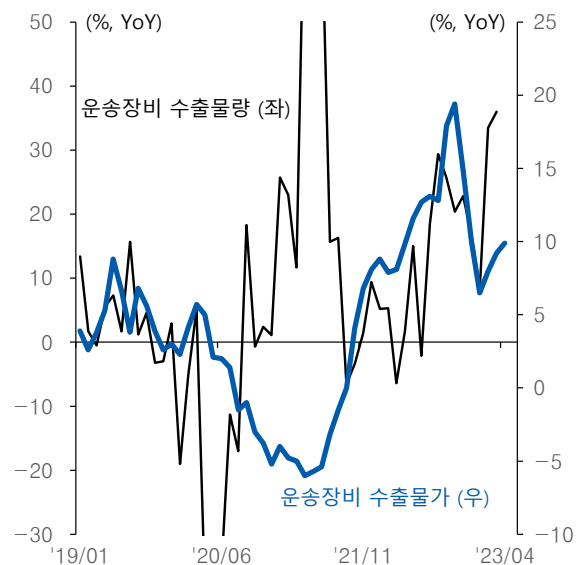
수출물량에서도 운송장비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높은 수치를 지속하고 있다. 대외 수요와 가격에서 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되는 상황이다. 또한 운송장비의 경우 지난해 수출물가, 물량측면에서 기저가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치가 강하게 확인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차트1] 4월 한국의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7.5% 하락. 전월대비 기준 3개월 연속 상승세.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4월 수출금액 2위 품목인 운송장비의 수출물가는 상승세. 운송장비 수출물량도 전년대비 높은 수치를 지속.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미국의 수요 상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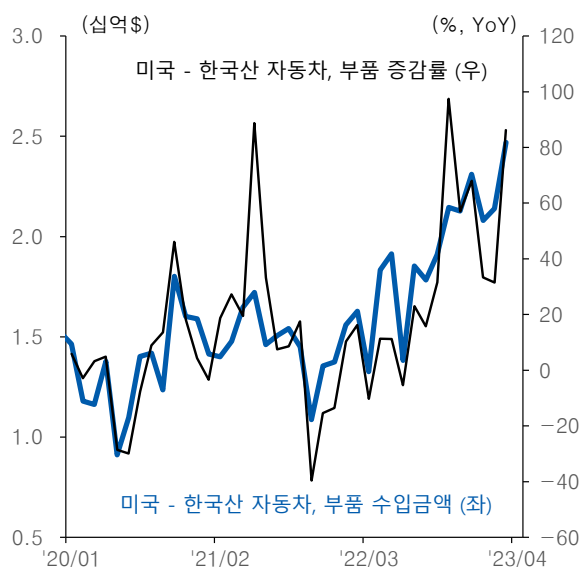
중국발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한 가운데 미국발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다. 3월 기준이지만 미국의 한국향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은 25억 달러로 전년대비 86.2% 급증했다. 또한 반도체, 첨단장비, 고가의 가전을 포함한 하이테크 수입 금액도 회복하고 있다.

한편, 4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4% 증가하며, 3개월 만에 반등하였으나, 컨센서스(0.8%)를 하회 하였다. 전년대비로는 1.6% 증가하며, 코로나19 락다운 직후인 2020년 6월(YoY 2.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매판매가 오랜만에 반등한 점은 긍정적이나, 4월 CPI가 전월대비 0.4%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소매판매 성장은 보합으로 볼 수 있다. 경기침체 우려와 신용과 관련된 리스크 수위가 높아졌지만 소비의 급격한 둔화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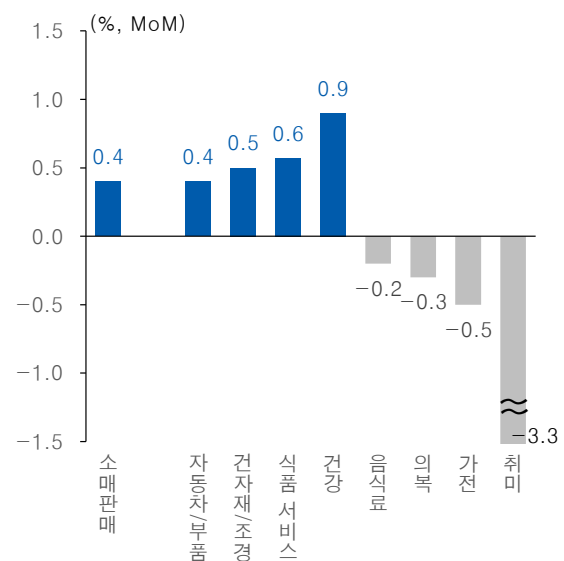
형태별로 일반소매점(2.4%)과 온라인(1.2%) 매출이 동시에 증가하였지만, 품목별로 여가(-3.3%), 가전(-0.5%), 의복(-0.3%) 등 서비스와 준내구재 매출은 감소하였다. 반면, 헬스케어(0.9%), 전자재 및 조정(0.5%), 자동차 및 부품(0.4%) 등 경기사이클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작은 제품들의 소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트3] 미국의 한국향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은 25억 달러로 전년대비 86.2% 급증.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건강(0.9%), 자동차 및 부품(0.4%) 등 경기사이클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작은 제품의 소매 매출 증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미국 가계의 금융 상황과 수요 지속성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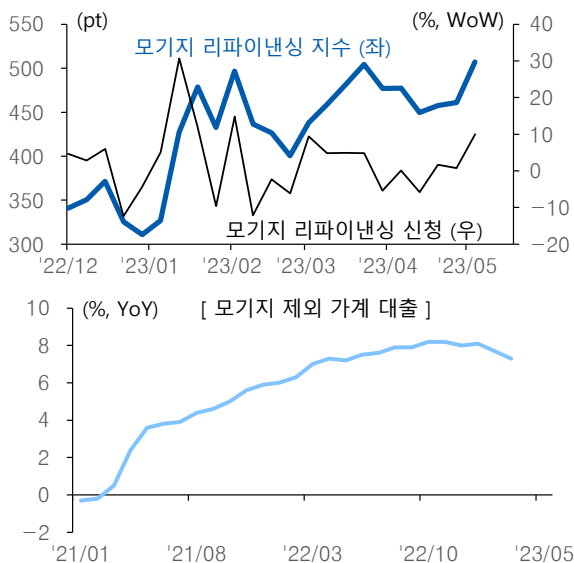
미국의 한국 제품 수요 형태는 중간재 보다는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한국의 완제품 수출물가도 지난해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0% 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기준으로도 연초 이후 상승세로 견조한 상황이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완제품 소비의 종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관련된 수출물가의 흐름도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가계의 수요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3월 기준 미국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대비 저축액은 6.4%로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평균(7.8%) 보다는 낮지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모기지 금리의 하락으로 리파이낸싱이 적극적으로 진행중인 상황으로 소비에 대한 부담이 당장에는 크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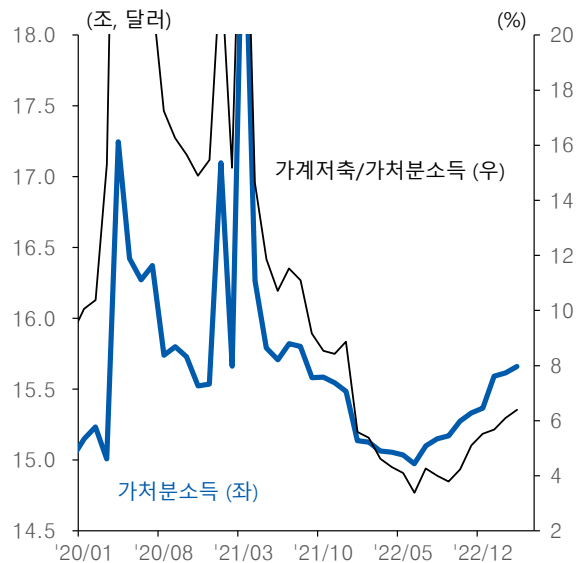
미국 가계의 저축 상황,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리파이낸싱 등으로 2분기에도 소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수출물가, 수출물량 측면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5]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리파이낸싱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 모기지 제외 가계 대출 증감률도 둔화.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3월 미국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대비 저축액은 6.4%로 과거 평균(7.8%) 보다는 낮지만, 증가하는 기조.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